

한총련 출범식이다 해서 따라갔다던 막내가 돌아 오지 않고 있다. TV에선 최루탄에 돌맹이에 난리 북새통이던데 우리 막내는 무사한지. 몽둥이를 든 경찰이 대학생들을 막 잡아가면 호적등본에 빨간줄이 간다던데. 우리 막내는 제발 무사했으면... 우리 막내 국민학교 다닐때 명동성당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여 시위해서 대통령도 우리손으로 뽑게 됐는데 같은 6월인 지금 막내가 걱정될 뿐이다.

Free style

◇이번주 Free style 주제
방학(10~12면)
◇인물 Focus - 조정원 총장 (9면)

12

1997년 6월 2일 월요일

테마신문

대학주보

이젠 우리앞에 자유가 펼쳐진다

두 달이 넘도록 이제 자유가 시작된다. 농활, 배낭여행, 아르바이트...무엇을 하며 방학을 보낼까? 잠시라도 주춤하다간 방학 내내 개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이제 시작이다.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각자의 의지와 계획력에 달려있다.

'시간이 너무 느리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답안지를 내는 친구가 나타났다.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강의실을 나가야지. 저 강의실 문만 나가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친구들이랑 영화를 봐야지. 그리고 모처럼 밤 늦게까지 술도 먹고 다음 날 늦잠자고 일어나서 또 무엇을 하지? 음...방학동안 할 일들을 생각해 보고 여행준비도 해보고 그리고 또...

두 달이 넘도록 이제 자유가 주어진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최고의 장점은 바로 '방학'이다. 아무런 방해없이 그야말로 젊다는 이름과 자유라는 명사로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시기.

활동파

태양이 작렬하고 푸른 파도가 산산히 부서지는 바닷가. 해변으로 가자. 여건이 되면 훌훌 털어버리고 텐트와 수영복을 챙겨 기차를 타고 선로 끝에 펼쳐져 있을 모래사장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 아님 비행기를 타고 하루를 넘겨 날라가 언어와 문화가 판이하게 다른 미지의 세계로 배낭하나 달랑 매고 모험을 하고싶다. 세계의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진으로만 보던 미술작품, 건축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야말로 '세상은 참 넓다'는 말을 직접 체험하며 방학을 보내고 싶다. 또 하나 항상 눈독을 들어왔던 오디오를 장만하고 싶던 바램을 이루기 위해 또는 자전거 여행을 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종일 일을 하며 돈이 모여지는 기쁨을 만끽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학구파

'취업대란'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제대로 먹고살기 힘들다고 여기거지서 떠들어댄다. 토익, 토플, 학과성적 어느 한가지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방학을 하기 무섭게 영어학원으로 직행하여 수강증을 끊는다. 아님 학교 도서관으로 매일 출근해 구석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차근차근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며 하루의 지는 해를 도서관 창문으로 바라본다. 두 달 반 가량의 자유를 좀 더 안정적인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

포기파

아침부터 더위에 땀을 흘린다. 늦게 잠자리에 서 일어나 시계를 보니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다.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낼까 생각을 해 봐도 좀처럼 떠오르는 것은 없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 봐도 친구들은 모두 학원야다, 여행야다 가고 있다. 만화책을 빌려보며 하루를 보낼까? 걱정이다. 아직 개강은 많이 남아 있는데... 방학을 시작하며 마음먹었던 일들은 모두 흐지부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신입생에겐 입시관문을 통과하고 처음 맞이하는 방학이 무척이나 가슴 설레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반 재학생들에겐 지난 방학보다 좀 더 알차고 계획적인 방학을 보내려는 바램으로 설렘 보단 비장함(?)이 앞설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개강이후 '이번 방학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방학의 중반정도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리저리 여행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방학을 보내고 있을런지 아님 취업을 위해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도서관도 다니며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을지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며 개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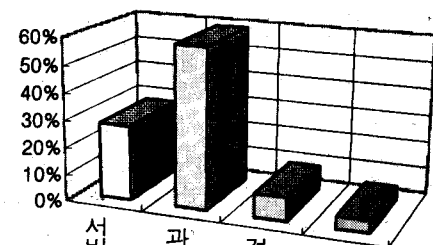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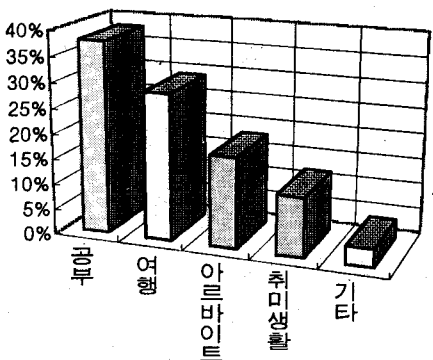
이제 시작이다. 두 달 반 동안 주어지는 공백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이제 각자의 의지와 계획력에 달려있다. <김동욱 기자>



□특집 설문조사-경희인의 방학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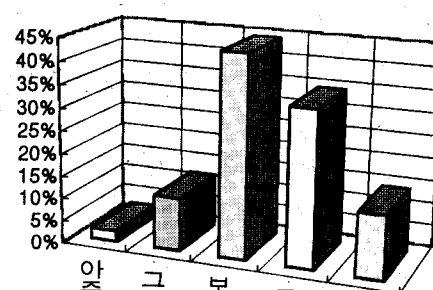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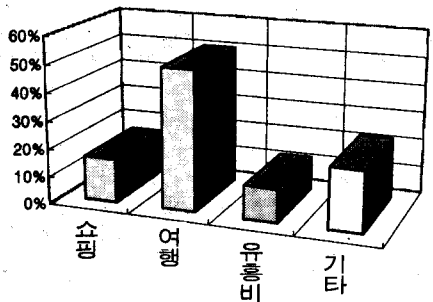
이번 방학때 공부하겠다 38%

1. 당신이 이번 방학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2. 방학중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는?

3. 용돈을 마련했다면 방학중 어디에 지출하겠는가?



4. 그동안 지내왔던 방학이 만족스러웠는가?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려는 우리학교 학생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방학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참고한다면 자신의 방학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신문에선 여름방학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방학을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수원 캠퍼스 학생들 각각 2백25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방학이라 하면 학업의 연장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며 좀 더 폭넓은 경험을 쌓고 여러 사회경험을 해 봄으로 강의실 수업만으로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치를 얻기 위해 색다른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겠으나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열중하며 보내겠다고 답했다. (38%)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학을 보내겠다는 학생들(17.9%)중 48%가 과외로 돈벌이를 하겠다고 답해 쉽게 돈을 버는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쉽게 번 돈은 방학중 여행경비로 쓴다는 의견(50.3%)이 지배적이었다. 지금까지의 방학이 만족스러웠냐는 질문에 13.7%의 학생들만이 만족스러웠다고 답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학을 계획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기사 11면